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org/email-stfrancisk.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무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포코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민수 6,22-27

제2독서: 야고 4,13-15

복음: 루카 12,35-40

가톨릭 성가 입당: 77

봉헌: 416

성체: 503

파견: 까지 까지 설날은

### ◆ 화답송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 시웁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웁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웁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나이를 더할 때 마다”

나이는 칠을 더할 때마다  
빛을 더해가는 옷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를 멋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한 해 두 해 세월이 거듭할수록  
매력이 더해지는 사람과  
세상이 거듭될수록  
매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일수록,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매력의 빛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칠을 거듭할 때마다  
빛과 운기를 더해가는 옷처럼 말이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기회가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를 거듭하지 않으면  
맛 볼 수 없는 기쁨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거듭하는 기쁨! 그 기쁨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멋진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내 영혼의 비타민에서 - ♣

###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2월 3일	이은경 헬렌	민완준 폴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워지 베네딕다	민덕미 안젤라	이경자(벨) 표해심	이상하 홍 찬	이영근 신정목 채미재 김효진 신윤길 이서원 강호영 이경숙
2월 10일	주세정 레이첼	민성진 에드몬드	박예하 레나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고은경 모니카	유기호 진문자	임유진 장동엽	윤숙자 박정자 이경자(울) 이영혜 이경자(벨) 신애송 박기목 박민재

◆ 설 날

1. 설의 어원

설이란 이름의 유래는 3가지 정도로 전해져 온다. 먼저 새해의 첫날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는 의미로 '낯설다'의 어근인 설에서 전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이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선날->설날 이렇게 연음화 되었다는 설이 두 번 째다.

마지막으로 삼가다는 뜻의 옛말인 '섭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명절이고 즐거운 날인 설의 의미와 동떨어진 듯 느껴지기도 하나 설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 표현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니 새해첫날부터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2. 설의 변화

신라시대에 새해아침에 서로 축하를 하며 왕이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해와 달 신에게 제사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설을 쇠 것이 오래됨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가족중심의 설은 [고려사]에 9대 명절의 하나로, 조선은 4대 명절의 하나였다.

한때 1895년부터 태양력을 채용하면서 서양의 양력설과 음력설의 논쟁이 되어 일제와 광복 후 국가적인 유도로 양력설을 지정하였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대다수가 음력설을 지냄에 따라 1985년 민속의 날로, 현재는 설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3. 까치 설날

설날 그믐날을 '까치설'이라고도 하는데 '설날' 노래가 있기 전에는 까치설이 없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작은설을 가리켜 '아치설', '아찬설'이라고 했다. '아치'는 '작은(小)'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치설의 '아치'의 뜻을 상실하면서 '아치'와 음이 비슷한 '까치'로 엉뚱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것의 근거는 음력으로 22일 조금을 넘서 다도해 지방에서는 '아치조금'이라 하는데, 경기도 지방에서는 '까치조금'이라 한다. 이렇게 아치조금이 까치조금으로 바뀌었듯이, 아치설이 까치설이 바뀌었다고 한다.

'설날'이라는 노래의 작사작곡을 한 윤극영 선생은 이복출신 서울 사람이었다고 한다.(노래는 1927년작) 이것은 윤극영 선생이 경기도 지방의 언어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4. 설날(까치 까치 설날) 노래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땡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란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박-기 좋아하-세-요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야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Sam Ahn  
**NEWSTAR**  
NewStar Realty 부동산  
(콘도, 빌딩, 매매, 리스, 사업체)  
(M)201-294-4510 (T)212-967-4242  
smahn@newstarrealty.com  
16W 32nd St. #702, New York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corcoran**  
real estate  
**David Son**  
david.son@corcoran.com  
917-613-7305

**동양보험**  
Property & Liability Wholesale Brokerage  
**이은경 헬렌** Licensed Broker  
**212-683-9393**  
16W 32nd St. Suite705 New York, NY

**메디케어/시니어 플랜전문**  
가입변경 처방 약 추가혜택, 롱텀케어 무료상담  
Licensed Insurance Agent  
**Jane Min 민재민**  
(929)888-3030  
Jane@usboh.com 카톡문의 @usa메디케어

**Sae Woong Rho** NEW YORK LIFE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OLYMPIA** **올림피아 여행사**  
OLYMPIA TOURS & TRAVEL  
항공권(대한항공 대리점), 고국 관광, 유럽/남미여행, 유람선, 신혼여행 등  
**박옥영 로사리아**  
212-695-6699, 718-224-9477  
www.olympiatourusa.com 1270 Broadway #302, New York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Kyari**  
알래스카 야생블루베리와 홍연어 주원료  
모든 성인병, 암, 아토피, 당뇨, 심장질환 외에 탁월  
혈관을 건강하게, 염증제거, 자연영양공급  
**이클라우드아**  
**917-484-11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JM JAKE MOVING**  
**917.450.8389** NY  
NJ **201.300.7881**  
손님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포장이사 • 타주이사 • 귀국이사 • 학생이사  
서정숙 야코보 jakemoving77@gmail.com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F-1 I-20 발행)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FL New York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대한인쇄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인공지능 투자가** 2017년 베스트 셀러!  
**권트**  
월스트리트 인공지능의 지열한  
전쟁 이야기  
반디북US, 고려서적, 리디북스에서 절찬 판매 중  
문의-권관진 박오로  
yjp.kwon@gmail.com 646-831-8031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 오늘, 김애희 테클라 자매님이 어머니이신 김영복 아네스님의 91세 생신을 맞아 떡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지 사 항

➢ 설 명절 행사

일시 및 장소 : 오늘 미사 후~오후 1시 친교실  
 일정 :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 예절 2)전통놀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2월 성경 공부 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후 1시30분~2시50분	

➢ 한국학교 등록

[https://manhattan.co1.qualtrics.com/jfe/form/SV\\_5na7jL2bd9nvPsp](https://manhattan.co1.qualtrics.com/jfe/form/SV_5na7jL2bd9nvPsp)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2월 17일(주일) 오후 2:00(미사 있음)~  
 18일 (월) 오후 7:00(1박 2일)

장소: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시작 모임장소 : 락클랜드 성당의 이태석 신부 기념관

인원 : 50명 / 신청 마감 : 2월 4일(월) / 참가비 : \$180.00

참가대상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생활하고 싶은 분들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기도서 등

신청방법 : 본당 성령 기도회/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참가경비 : \$ 2,900 선착순마감 : 25명 예약금 \$500

문의 : 성당 사무실

➢ 요르단-이스라엘 성지 순례

주관 : 버지니아 재속 프란치스코회

일시 : 2019년 11월 4일 ~ 16일(12박 13일)

인솔사제 : 작은형제회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  
 윤여원 요아킴 신부

경비 : 미화 3,800 달러/ 신청마감 : 2019년 3월 31일

연락처 : 한기남 데레사 hankids5@gmail.com

cell : 703-674-6081, 집 : 703-425-9445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목석 오인희 박정호 황인자 이은주 김용자 정희자 정봉애 고은경	\$ 1,540
감사헌금	익명 김예지 Lorenzo Falchi & Rachel Lee	\$ 650
양업회		\$ 608
합 계		\$ 2,798
꽃 봉헌	노혜영	\$ 20



Adieu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이진옥 실비아 지휘자님이 20여년의 본당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수고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건강 기도드립니다.

(성경 맛들이기 - 루카 복음서 계속)

**루카 복음의 구조**

루카 복음의 주요 골격은 마르코 복음을 따라 가고 있다. 마르코 복음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중간 중간에 루카 복음서 저자가 수집한 다른 자료들을 삽입하면서 복음서를 편집하였다.

①활동준비 : 탄생, 세례자요한이야기, 광야의 유혹

②갈릴래아 활동 : 나자렛에서 설교하신 이야기

③예루살렘 상경 : 갈릴래아를 떠나 예루살렘 근처로 여행하신 이야기

④예루살렘 활동 :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승천 때까지의 이야기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갈릴래아에서 활동하시다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논쟁과 수난, 죽음,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한다.

루카 복음을 읽을 때 눈여겨 볼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구원역사>라는 것이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시대와 구원의 시대로 구분한다. 그리고 구원의 시대는 다시 예수님 시대와 교회의 시대의 구분된다.

루카 복음은 또한 가난하고 소외 받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과부들, 죄인들, 고아들, 세리들……. 루카 복음은 특별히 이런 이들에 대해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 준다.

기도에 대해서도 루카 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다.

## “ 성경 맞들이기 ” - 루카 복음서

### 루카 복음서는

마르코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다. 공관복음서 중 세 번째 복음서인 루카복음서는 마태오 복음서나 마르코 복음서에 없는 내용(루카의 특수 자료)을 꽤 많이 담고 있어 예수의 행적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해 준다. 특별히 ‘소외 받는 이들의 복음서’라 불리는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미와 기쁨, 희망과 평화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 저자

무라토리오 경전목록(180년경 로마에서 쓰임)과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130-200년경)는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바오로의 협조자인 의사 루카(골로 4,14 ; 2티모 4,11 ; 필레 1,24)가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복음서를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루카가 전하는 바오로와 바오로 서간에서 바오로 자신이 이야기 하는 바오로의 모습과 활동 내용이 무척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편의상 저자를 루카라고 부를 뿐이다. 그리스-로마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머리말 1,1-4) 그리스어 문장력도 뛰어나지만 팔레스티나의 지리(4,29)와 유대인의 풍습(1,59 ; 5,19 ; 6,48)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자가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집필 연대

50-60년경에 쓰인 예수의 어록(Q문헌 : Q라는 명칭은 출처 또는 원천을 뜻하는 독일어 Quelle에서 유래)과 70년경에 쓰인 마르코 복음서를 참조해서 80-90년에 쓰였다고 본다. 유대의 독립 전쟁이 실패한 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21,20-24) 집필의 상한 연도가 70년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한 연도 또한 93년경에 쓰인 역사가 요세푸스<sup>1</sup>의 저서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90년경으로 잡는다. 그래서 대체로 80-90년경에 쓰였으리라고 추정한다.

### 집필 대상

이방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리를 설명(1,26 ; 2,4 ; 4,31 ; 8,26 ; 23,51 ; 24,13)하고 있으며,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바꾸어 전하는가 하면(예컨대, 랍비를 스승님이라는 그리스말로 따로 표현한다),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리스어로 쓰인 **칠십인 역**<sup>2</sup>(LXX)을 따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집필 대상과 내력, 동기 등을 밝히는 머리말(1,1-4)에서는 예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들에게서 전해 받은 그대로 엮음으로써, 이미 그리스도교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이 책이 쓰였다고 밝히고 있다.

<sup>1</sup>**요세푸스(Flavius Josephus)** : 서기 37-38년경 예루살렘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그리고 에세네파에 각각 일정 기간 몸담으면서 그들의 사상에 대해 정통하게 되었으며, 19세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리사이파에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기 66-70년 일어난 유대인들의 제1차 독립전쟁에 참전했다가 로마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이후 그는 친 로마로 전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황제 가문의 이름을 따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 개명하였고, 황제로부터 로마의 시민권과 자유를 얻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다. 그는 황제의 명에 따라 유대의 역사 외에도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의 저서들은 예수님 탄생 이전 세기와 그리스도교의 제1세기 동안에 걸친 팔레스티나와 디아스포라(Diaspora ; 그리스와 로마 세계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유대교 역사를 보다 넓게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sup>2</sup>**70인역(LXX ; Septuaginta)** :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 사이에 씌어진 70인역은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는 그리스어 구약성경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구약성경과는 달리 ‘제2경전’이라 불리는 7권의 성경이 더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시대에 주로 사용된 성경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수님뿐 아니라 당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이 성경을 주로 사용했다고 추측된다. 이는 신약성경에 인용된 구약성경이 70인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신학적·윤리적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적,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